

# 경쟁주자 캠프 인사 전진배치...의원 169명 뚝뚝 뭉쳤다

## 민주 '원팀 용광로 선대위' 출범

이낙연·정세균 등 상임고문단

이개호·신정훈·송갑석·서삼석

광주·전남 의원들 본부장 등 기용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인의 선대위원장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관례대로 송영길 대표가 맡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던 박용진·김두관·이광재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낙연 캠프의 설훈·홍영표 의원은 물론 정세균 캠프의 김영주 의원, 이재명 캠프의 우원식·변재일 의원, 김상희 국회의장과 5선의 김진표·이상민 의원 등도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투톱을 비롯해, 경선 주자, 각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 등 13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하고 169명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한 것은 차기 대선을 '용광로 원팀'으로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고문단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기존의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다던 이해찬·김원기·임재정·이용득 전 의원이 선대위에서도 상임고문으로 활동한다.

선대위 집행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앙선거대책본부(중앙선대본)도 공동총괄본부장 체제로 운영된다. 당 사무총장인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박광은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근 안규백 의원, 김태년·이상호·인재근 의원이 공동총괄본부장에 선임됐다. 상임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경선 기간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이었던 조정식 의원이 맡기로 했다.

선대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분부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이 후보 측 윤후덕 의원, 이 전 대표 측 홍익표 의원 등 4인 공동본부장 체제로 운영된다. 여성본부장에는 서영교 의원, 직능본부 공동본부장에는 김교흥·김병욱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전략기획본부장은 김민석 의원이 맡았다. 선대본 직할기구인 상황실은 김영진·조용천·진성준·고민정 의원 등 4인 체제로 구성됐다. 이 후보 측근인 김영진 의원은 총괄 역할을 담당한다.

이 후보의 직할기구인 특보단, 비서실, 공보단 인선안도 공개됐다. 총괄특보단장은 안민석·정성호·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위성곤 의원, 외교특보단장은 박노벽 전 대사, 국제통상 특보단장은 김현중 전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각각 인선됐다.

비서실장은 박흥근·최인호 의원, 정무조정실장은 강훈식 의원, 수행실장은 한준호 의원이 담당키로 했다. 공보단 수석대변인단은 고용진·박찬대·오영훈·조승래 의원 등 4인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초·재선이어서 선대위 고위직이나 비서실, 상황실 등 요직에 발탁되지 못했다. 다만 이개호 의원이 선거대책본부 농어민본부장에, 신정훈 의원이 자치분권본부장에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본부 수석 부본부장에 송갑석 의원, 총무본부 수석 부본부장에 서삼석 의원이 각각 기용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본격 본선행보...정책 선점 나섰다

1주일새 음식점 총량제·주4일 근무·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  
대장동 이슈 분산 효과...야당 맹비난 속 당내 역풍 우려 시선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인 본선행보에 돌입하면서 각종 정책 선점에 나섰다.

1일 정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경기 지사에서 물러난 이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음식점 총량제, 주4일 근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정책 카드를 쏟아냈다. 직접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을 찾아가는 등 여론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이슈에도 예상보다 반걸음 앞서가며 정책 보따리를 풀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에서 그치지 않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및 취득심사제, 수사권을 보유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의 구상도 밝혔다. 대권가도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대장동 의혹을 오히려 자신의 실행력을 부각하기 위해 정책 논쟁의 링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음식점 총량제와 주4일제 언급 역시 '반환법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야권의 맹비난에 직면했지만 일부 대장동 이슈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앞서 문제

인 대통령도 정책 대결을 말씀하셨고, 후보로서 행보를 시작하는 상황인 만큼 당연히 중심에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대장동 이슈를 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정책 중심 행보를 하다 보니 이슈가 전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까지 연일 밀어붙이면서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대선을 앞둔 '매포 정치' 아니냐며 비판에 나서면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견딜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벽"을 어떻게 넘겠느냐는 질문에 "도전해야 한다. 돌파하려면 공간을 지키는 사람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 달 넘는 기간 정기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경선캠프 대변인 출신인 현근택 변호사는 CBS 라디오에서 "내년 선거에 영향이 없으면 국민의힘이 빨리 추경에 동의해 주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슈를 주도하는 효과와 반대로 충분히 속성되지 않은 정책을 꺼내다가 자칫 역풍을 맞거나 수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미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상태에서 이 후보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일쑤다.

이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당에서 오랫동안 정부와 상의하고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해 버리면 당이 굉장히 어렵다"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선대위가 공식 발표하기 전으로, 이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가 당과 조율돼 나가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선대위가 구성되면 정책 파르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당 지도부가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홍준표·윤석열 접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과 각각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후보의 지지율이 36.5%, 윤 전 총장은 36.6%

0.1%포인트 차 초박빙이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전 총장은 3.0%포인트 상승했다. 홍 의원이 국민의힘 주자로 나선 가상 대결에서는 이 후보가 35.2%, 홍 의원이 34.2%로 1.0%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지지율 42.6%...당 출범후 최고치

리얼미터 조사...문 대통령 하락

국민의힘 지지율이 당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도 떨어져 당·정 동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2.6%포인트 오른

42.6%였다. 이는 국민의힘 창당 이후로도 최고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8%포인트 내린 29.9%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린 38.7%로, 한 주 만에 40% 선 밑으로 내려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

**World Top K-water!**

대한민국의 내일이 좀 더 즐거워지도록, 좀 더 행복해지도록!  
물로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합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